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최 상 진 · 유 승 업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심성행동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던 체면의 개념분석 및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체면의 사회심리적 속성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는 (1) 체면은 의현화 또는 표출화된 자기로서 사회적 자존심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2) 체면은 사회적 지위상에서 상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며, 반대로 하위지위의 사람에게에는 중요하지 않다. (3) 체면은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행위양식에 의해 통제된다. 즉,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적합 체면행동이 있게 마련이다. (4) 체면은 자기 자신이 지킬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다.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체면상승효과는 커진다. (5) 체면은 체면행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제삼자가 특정인의 체면을 타인앞에서 세워줄 때 지위상승효과는 극대화된다. (6) 체면은 사회적 관계에서 지위를 교환하는 상호작용 규칙이며 기본적 에티켓과 같다. (7) 체면은 과장이나 위선이 노출될 때 훼손된다. 따라서 결론과 지위상징을 적절히 함축할 때 체면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다. (8) 체면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지킬 때 거리감이 생긴다. 따라서 체면은 적당한 거리감을 가진 사람들간에 중요한 행위양식이다. (9) 체면은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인 반면, 자기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개인주의적 미국사회에서는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보다 덜 중요하다. 미국사회에서는 체면보다 인면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교환차원이다.

가. 서론

여러 학자들과 사회평론가 그리고 한국의 일반인들은 한국 사람이 체면을 중시한다는 말에 거의 합의하고 있다. 최재석(1989), 이규태(1977), 윤태림(1986) 등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이나 사회적 성격의 하나로 체면을 들고 있으며, 이들의 체면에 대한 견해는 대등소이다. 최재석은 “지위를 의식해서 지위에 상응하는 의적행동양식을 나타내 보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보장 받는 것”을 체면의 본체로 기술하고 있다. 이규태도 이와 유사한 체면관을 역사적 및 야사적 사건의 실예를 통해 기술하면서, 체면의 표리이중구조를 부연해서 설

명하고 있다. 여기서 “속(囊)”은 본 마음, 사실 또는 私的自己가 될 수 있으며, “겉(表)”은 밖으로 표현된 마음, 의적명분 또는 公的自己가 될 수 있다.

결국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의적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 또한 이규태는 한국의 체면과 서양의 명예를 구분하고 있다. 서구의 명예는 자신의 지위와 기문의 포리가 일치하는 방향에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체면은 포리의 일치보다는 당위와 명분을 중시하고 이에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면에는 “치레”적인 성격이 강하다.

윤태림은 체면을 형식주의의 시각에서 속담 속에 나

타난 체면사태들을 풀이하고 체면중시의 의식구조에서 수치문화(Shame Culture)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사실과 달리 걸치레적인 행동을 하게되는 것을 체면으로 보았다. 양반은 얼어죽어도 결불은 안찢는 식의 행동예로 들어 형식적이며 걸치레적인 행동으로 체면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석상에서 여러 사람의 반대를 의식하여 남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동조행동도 체면치레적 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윤택림은 한국의 속담중에 체면을 나타내는 속담, 예컨대 “냉수떡고 이빨 쑤시기”, “가난할수록 기와 집 짓는다”, “가계기동에 입춘대길”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이 다른 나라사람보다도 체면을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위신과 체면이 있으나 한국인은 이에 대해 외국인보다 더욱 큰 관심과 가치를 두고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사에서 1990년도 연중기획시리즈로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한국인 진단(1991)에는 45개의 연재물이 수록된 바, 그 중 체면과 관계된 글이 세 편 실려있다. 하나는 “호칭 인플레이가 심하다”, 또 하나는 “자기 과시 지나치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이다. 이들 세 편의 글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일반사회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진단하면서, 각 글의 후미에서 전문가의 종합적 견해를 통해 자신들의 관찰을 보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호칭 인플레이와 관련하여 한국사람들은 상대방을 칭할 때 경어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경칭 남용현상에 대해 김광식 교수는 “신분과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이 경칭을 들음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최종고 교수는 “한국인의 지위지향성이 경칭과용 현상을 낳고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찌기 한국어 경어체계를 연구한 외국인 Howell(1967)도 한국인의 경어사용심리를 지위(status)와 유대(solidarity)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자기과시 지나치다”에서는 소위 한국인의 의제 및 유명상표 선호행동과 신분지위 과시행동에 대한 실례를 통해 한국인의 자기과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경칭 과용현상은 상대의 지위를 과시적으로 높여주고 확인해 주려는 동기에서 나타난 행동이라면, 자

기과시 행동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에서는 한국인의 대화나 행동에서 자주 발견되는 ‘인사치레성’, ‘의례성’대화나 행동을 실례로 들면서 표리의 부동을 한국인의 특성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한국인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눈치를 살피고 체면을 중시하며 외적으로 명분에 집착하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그 연원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김용운 교수는 표리가 다른 것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인은 ‘혼네’(本音 본심)와 ‘다테마에’(建前 남에게 듣기좋은 말을 하는것)를 철저히 구별하여 사용하며, 따라서 일본인은 겉다르고 속다른 면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면을 표리부동이라는 한 단면에서만 포착할 때 일본인의 ‘혼네-다테마에’ 관계와 구분되기 어렵다. 그러나 ‘다테마에’에는 자신이 아닌 상대의 명분과 명예를 상황적으로 높여주는 데 촛점을 둔 사회적 리츄얼(social ritual)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체면은 원칙적으로 타인보다 자신의 권위와 명분을 과시하는데서 동기화된 상황적 행동(situational behavior)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다테마에’에는 상대에 대한 허구적 친절(politeness)의 의미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관습화, 관례화된 상호작용상의 의식성(rituality)이 강하나, 한국인의 체면에는 친절보다는 자기 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의식성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처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다.

체면의 자기과시성 측면과 관련하여, 여동찬(1987)은 “현대판 군자와 특권의식”이란 주제의 글 속에서 한국사람들이 오만, 거만, 자신만만함을 몸에 걸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꼬집고 있다. 그가 말하는 특권의식은 거드름을 피우는 행동을 지칭하며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체면지향 심리를 기저에 깔고 있다고 하겠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한 차재호(1988)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인은 명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명분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은 형식주의적 사고방식, 체면중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하는 유교의 윤리관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는 해석하고 있다. 김용운

(1986)은 한국인에 대한 최대의 모욕은 “무시 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구다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한 작품 「그 석양(夕陽)」의 내용 속에 한국인 처가 일본인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큰 불행은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이 갖는 심각한 의미를 일본인들은 이해할 지 의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무시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격의 모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했다는 것이 무시당했다는 말의 본 뜻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인 가세히데아키(1989)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은 졌다고 생각하면 깨끗이 ‘항복했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인에게 ‘항복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항복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찰로 한국인들은 토론에 미숙하다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특히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토론이 합의로 수렴되는 일이 한국인에게 어렵다는 것이다(한국인 진단, 1990, p 8-9). 또한 한국인은 책임회피가 심하며(상계서, p 60-63), 제도타을 잘하며(상계서, p 80-84), 핑계를 잘 대는(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체면과 밀접히 관련된 현상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행복을 하거나 토론에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일들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공격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신의 체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이려는 행동은 흔히 최고 및 일류지향성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김정규(1991)는 47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겪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면접조사한 결과에서 남여 공히 학력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남자의 경우 출신학교의 배경이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 학력과 출신학교가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일류지향성과 관련된 체면의 손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

사한다.

한국인의 심리를 실증적 조사를 통해 조사한 이근후 등(1991)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아방어기제중의 하나가 허세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정신분석학적 시각에서 허세의 심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의 복합심리로 해석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허세는 체면유지와 관련된 포리부동의 심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구 또는 무의식이 허세의 형태로 표출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면의 심리가 자기과시나 허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규태(1991)는 이러한 특성을 ‘분수이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한국인의 환상성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일종의 체면지향 행동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다.

위의 글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체면이 어떤 심리 및 행위현상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체면은 1) 지위가 높음을 나타내려는 심리 및 사회문화구조와 관련되며, 2) 이러한 지위를 외적인 지위상징물이나 지위상징행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 보이게 되며, 3) 따라서 체면에서는 체면상징을 외부사람이 지각하는 것에 의해 체면현시 효과성 여부가 결정되며, 4) 체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형식주의가 나타나며, 또한 자기과시로 상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람이 체면을 서양사람들에 비해 중요시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적 논리와 관찰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그 실예를 찾아볼 수 있다. 집을 짓고 고래등같은 집을 짓고, 대문은 양반집 대문 아니면 영국의 원저궁 대문처럼 크고, 차는 경제성보다 고가성차를 선호하고, 거동은 높은 지위의 인물이 하는 거동양식을 선호하고, 음식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시켜 지위경제적 상층성을 암시하고, 의복은 자기의 경제적 신분에 넘치는 외제나 고가품을 선호한다는 현상에 대해 일반인 모두가 거의 시인하며, 이러한 현상들을 체면지향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예시된 학자나 사회평론가들의 글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한국인이 체면을 중시한다는 면을 예시하거나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체면이 어떤 심리기제에서 나타나며, 체면은 개념적으로 어떤 사회심

리적 현상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나 연구는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다. 체면이 한국인의 특성적 심리 또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면 그 내부구조를 분석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연구는 체면이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인지, 고유한 현상이라면 어떤 점에서 고유한지, 한국의 체면과 유사한 현상을 지칭하는 서양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것이 체면과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또한 일본에서도 우리의 체면과 유사한 현상과 개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유사하거나 다른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체면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만일 체면이 한국인의 대인상호작용, 자아개념, 지위-권력관계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개념 및 현상이라면 한국인의 사회심리학적 이해에서 체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서양에서는 체면과 유사한 개념인 Face, Politeness, 또는 Dramaturgy 등의 개념을 전통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부상시켜 연구해 오고 있으며(예컨대, Goffman; 1967, 1981), 기실 사회심리학적 개념은 서양의 경우 자신들의 일상적 문화생활 속에서 추출한 개념 또는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체험하고 의식하며 한국인의 머릿속에 개념화된 체면과 같은 현상을 연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체면의 속성을 분석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 체면을 차리는 대인관계에서 누가 누구 앞에서 체면을 차리게 되는가
- (2) 어떤 경우에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가
- (3) 체면을 안차려도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4) 체면이 떨어지면 어떤 손실이나 불리함이 초래되는가
- (5) 어떤 사람(그 사람의 특성과 사회적 신분)이 체면을 지키는 데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둔감하거나 무관심한가
- (6) 어떤 상황에서 체면을 안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거나 좋은가
- (7) 어떤 경우에 체면을 지키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가
- (8) 어떤 경우에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가

- (9) 어떤 연령, 사회적 신분, 지위를 가진 사람이 체면을 더 지켜야되고 덜 지켜야되는가
- (10)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체면관계상황에서 노출시키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 (11) 상대의 체면을 제 3자 앞에서 세워주는 행동이나 말은 어떤 것인가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조사연구에서는 서울의 C 대학교 남녀학생 90명(남: 51, 여: 39)을 대상으로 위의 연구문제에 상응하는 질문을 자유기술식과 구조적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199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사하였다(질문지는 부록 참조).

다음 실험연구는 체면관계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수와 학생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을 미리 고안된 스크립트에 따라 구성하고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여기서는 체면을 세우는 당사자 쪽의 행동보다는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학생)의 행동을 채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당사자인 교수가 5명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연구실에서 면담하는 형태를 취했다. 면담의 내용은 졸업논문 주제로 삼았으며, 졸업논문을 쓸 4학년 학생과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의 생각과 상반되는 주제를 학생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몰래카메라를 통해 수록하였다.

실험의 시기는 1990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 까지였다. 결과의 분석은 조사연구의 경우 기술적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연구에서는 학생의 반응을 언어적, 안면표현적, 행동적 측면에서 내용분석하였다.

다. 연구의 결과

1. 조사연구

연구문제 1: 체면을 차리는 대인관계에서 누가 누구 앞에서 체면을 차리게 되는가

이자 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앞에서 체면을 차리게 되는가를 자유기술식으로 기입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체면을 차리게 되는 이자관계

체면을 차리게 되는 이자관계	반응빈도 1위	체면을 차리게 되는 관계의 우선순위*		
		2위	3위	4위
교수가 학생앞에서	77	26	14	15
상사가 부하직원앞에서	69	15	9	20
선배가 후배앞에서	56	4	5	7
남자(애인)가 여자(애인)앞에서	50	11	5	11
형(누가)이 동생앞에서	40	1		3
남편이 아내앞에서	33	1	2	1
부모가 자식앞에서	32	5	6	2
정치가가 국민앞에서	31	6	6	1
유명인이 대중앞에서	28	6	3	2
여자(애인)가 남자(애인)앞에서	26	2	4	3
시어머니가 며느리앞에서	19	4	3	2
기 타				

기타란에는 아내가 남편앞에서, 판·검사가 죄수앞에서등 다수가 포함됨.

* 각 개인이 기술한 이자관계중에서 중요도 순위 3위까지 매기게했음.

가장 보편적이며 동시에 체면이 중요한 관계상황은 교수 대 학생, 상사 대 부하직원, 선배 대 후배, 남자(애인) 대 여자(애인), 형(누나) 대 동생, 남편 대 아내, 부모 대 자식, 정치가 대 국민, 유명인 대 대중, 여자(애인) 대 남자(애인), 시어머니 대 며느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일률적으로 체면을 지키는 관계상황은 지위나 신분에서 이미 상대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앞에서 나타난다. 지위나 신분에는 직위, 직능, 연령, 친인척관계 등에서의 상하관계가 대표적이다.

위의 결과를 볼때, 체면을 지키는 관계상황은 양자간의 관계가 제 3자 관계처럼 전혀 무관하거나 전혀 멀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친구나 부부와 같이 서로를 아주 깊숙히 아는 동일체적 친분관계(Unite Relationship)도 아닌 격의관계, 공식관계, 제도적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위의 결과에서 체면을 차리는 사람의 특성은 그 상대와 비교해 신분이나 지위, 연령 및 관계상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체면은 신분이나 지위상 상위에 있거나 또는 지킬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손상받지 않기 위해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 상대방의 사람은 이러한 지위상징 행동을 받아드리고 동시에 상대의 지위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게될 때 양자간의 체면관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지위관계나 신분관계상의 구분이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체면을 세우고 세워주는 체면수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주 가깝거나 아주 무관한 이자관계에서는 비체면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 어떤 경우에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가

여기서는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자유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내용을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했으며, 범주에 따른 반응빈도는 표 2와 같다.

자유기술 응답내용에 대한 분석내용을 그 빈도와 중요도 면에서 보면, 첫째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규범을 일탈하거나 어겼을 때, 즉 비천한 행동을 했을 때 체면이 떨어지며, 둘째 자신의 신분과 지위 유관 직능에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능력 및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즉 무능한 행동을 할 때 체면이 떨어지며, 셋째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연계된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즉 탈권위적 행동을 했을때 체면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 2>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별주 및 반응빈도

상황 범주	구체적 반응내용의 예	반응빈도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규범을 일탈하거나 어겼을 때(인격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말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 언행에 대한 실수 · 큰소리로 요란하게 말함 	118
자신의 신분과 지위유관 직능에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능력 및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능력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가 지식이 짧을 때 ·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못할 경우 · 남들은 다하는데 자기만이 특정한 일을 못할 때 	114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연계된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권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게 되는 경우 · 여러사람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 · 무시를 당할 경우 · 사회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하지못할 경우 	109

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체면은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되면서 동시에 그 신분과 지위에 적합한 인품, 능력, 권위 규범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을 일탈하는 행동을 할 때 체면이 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무슨 규범을 파괴하거나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하는 바, 그 추론과정에 대한 이해에서는 Jones와 Davis(1965)의 상응추론이론(Correspondence Inference Theory)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장부인이 맘보바지 차림으로 사원 앞에 나타날 때 맘보바지는 곧 그 사장부인의 인격적 체면손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한 응답자의 실례), 이러한 행위-인격, 행위-능력, 행위-권위 추론도식은 앞으로 구체적 실례를 통해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문제 3: 체면을 안차려도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내용을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 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위 표에서 보면, 체면을 안차려도 되는 상황은 1) 아주 친밀한 관계, 2) 체면보다 더 중요한 또한 더 시급한 욕구가 지각된 상황, 3) 분위기가 체면을 앞도하는 상황(예컨대, 잔치집, 야유회, 데이트상황 등), 4) 체

면이 격식감과 소원감을 주는데 기여하는 상황에서 상대와 더 친밀하게 되고싶은 상황 등이다. 위의 결과에서 추론되는 것은 체면이 그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다른 욕구나 필요성보다 떨어지거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상황적 적합성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때 체면을 안지키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문제 4: 체면이 떨어지면 어떤 손실이나 불리함이 초래되는가

여기서는 두가지 형태의 질문을 사용한 바, 하나는 구체적 상황별(사장이 사원앞, 어른이 아이들앞, 아버지가 지식앞, 남편이 부인앞, 대통령이 국민앞, 선생님이 학생앞, 남자가 여자앞)로 그 손실이나 불리함을 먼저 자유기술식 형태로 질문하고, 다음으로 일반적 상황에서 체면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이나 불리함 20개 항목을 나열하고 그 손실의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먼저, 자유기술식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계상황별로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분석을 통해 응답의 내용을 범주화해보면 표 4와 같이 7개 범주로 묶어질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면, 권위추락, 상급자에 대한 불신, 영향력 저하, 인격의 하락, 지위관계의 파괴, 기대에 대한 실망, 무능하다는 지각 등이 주된 손실 및 불리함의 범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상황별로 차이점을

<표 3>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범주 및 반응빈도

상황 범주	구체적 반응내용의 예	반응빈도
아주 친밀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사이에서 • 가족끼리 • 연인사이 • 동료사이에서 	107
체면보다 더 중요한 또한 더 시급한 욕구가 지각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고플때 식사제의 • 급한일로 뒤편 • 식사할때 	66
분위기가 체면을 앞도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좌석에서 •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 사적인 자리에서 	40
체면이 격식감과 소원감을 주는데 기여하는 상황에서 상대와 더 친밀하게 되고싶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친한 사이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체면 	29

<표 4> 체면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실 및 불이익점

손실 및 불이익점 범주	구체적 손실 및 불이익점의 예	반응빈도
권위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더첩이 떨어진다 • 존경심 상실 • 위엄 상실 • 국가의 권위추락 	240
상급자에 대한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에 대한 불신 • 어른을 믿지않는다 • 신뢰도가 떨어진다 • 신임을 잃는다 	143
영향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력 저하 • 본보기가 못된다 • 통제력 약화 	128
인격의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해 보인다 • 자존심이 상한다 • 인간성을 의심받는다 • 무시당한다 	120
지위관계의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관계의 파괴 • 말을 안듣는다 • 좋은관계를 이루기 어려움 	73
기대에 대한 실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망으로 인한 애정 상실 • 데이트 성사안됨 	61
무능하다는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추갈다 • 능력없는 사람 	37

<표 5> 체면이 떨어질 때 손실의 정도 (N=90)

문항내용	평균	순위
1. 인격이 천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3.333	7
2.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쉽다	3.122	
3. 존경심이 줄어들 수 있다	3.811	3
4. 상대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다	2.856	
5. 천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2.711	
6.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3.333	7
7. 고등교육이나 명문학교를 못나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2.822	
8. 성격이 거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2.656	
9.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2.489	
10. 그런 사람과 사귀면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778	
11. 손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644	
12. 아래 사람이 리더의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3.922	1
13. 품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867	2
14.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333	7
15.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644	
16.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444	6
17.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589	4
18.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622	
19.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578	5
20.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789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학생들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신임이 추락된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커진다. 아버지의 경우 자식과의 도덕적 관계가 깨어진다. 어른의 경우 아이들이 어른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다음, 구체적 항목을 사용해서 묻는 구조적 질문에 대한 응답반응을 체면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손실의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이주 그렇다) 상에서 평균점수로 환산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가장 큰 손실은 12번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 아랫사람이 그 사람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다음이 13번 품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3번 존경심이 줄어들 수 있다, 17번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19번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등의 순이다. 가장 높은 평균 평가치를 보인 위의 문항의 내용을

보면, 영향력 감소(12번), 인격 추락(13, 7, 3번), 교양부족(19, 6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를 다시 기저에 깔린 요인에 따라 분석해 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적교회전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바,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면, 제 1요인은 전체변량의 32.3%를 설명하고, 나머지 2에서 6요인까지는 각각 8.2%, 6.9%, 6.5%, 5.7%, 5.1%를 설명하고 있어, 제 1요인은 2요인설에서 볼 때 일반요인(general factor)에, 나머지 2에서 6요인은 특수요인(specific factor)에 해당되는 것처럼 결과는 나타나고 있다. 제 1요인에서는 모든 문항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높은 부하량을 보인 항목은 신뢰성 없음, 손해를 주는 사람, 무능한 사람, 어렵게 생각안함 등으로 이 요인은 인격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 권위성 측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요인은 일반적 지위-인격 권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지위와 인격이

<표 6> 체면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손실내용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커뮤니티
A6	.74232	-.28873	-.11701	.13510	.00243	-.15547	.69052
A19	.73553	-.19013	.15411	.03862	-.12881	-.00704	.61903
A13	.67998	.11822	.15547	.04122	-.09327	.33873	.62566
A2	.64280	-.01734	-.24462	-.08883	.37194	-.22378	.66963
A20	.63498	-.40161	-.12793	.01748	-.14627	-.35148	.72610
A14	.63310	.36633	-.02326	-.25458	-.04212	.06706	.60663
A11	.61253	.32767	.02863	.20427	-.34940	-.04620	.64933
A15	.60013	.39426	-.12269	-.32235	-.02736	-.39695	.72287
A12	.59502	.02735	.16796	.05620	-.25617	.10670	.46317
A18	.57735	-.06081	.36903	-.06408	-.27998	-.08330	.56264
A7	.56195	-.39268	.25664	-.12030	.01061	-.13502	.56867
A5	.55434	-.47137	-.32152	.13382	.01878	.19117	.68766
A10	.54150	.15346	-.15908	.36193	-.28459	.03700	.55544
A16	.48471	.07686	.34785	-.31860	.32719	.24885	.63234
A8	.39755	.32640	.20685	.29410	.32499	-.24240	.55824
A1	.53206	.04568	-.64513	-.16984	.28368	.02690	.81141
A17	.39103	-.26798	.49324	-.03008	.44087	.00537	.66330
A9	.28845	.48282	.05329	.59364	.31027	-.00388	.76785
A3	.42008	.33216	-.08021	-.51800	-.10552	.24575	.63308
A4	.51125	-.15047	-.19149	.20687	.12280	.53407	.66379
아이겐값	6.46068	1.64890	1.38237	1.29200	1.14510	1.10832	
설명량	32.3	8.2	6.9	6.5	5.7	5.1	

함께 묶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요인이 함께 공존함을 기대하는 한국인의 지위-인격 관련 스키마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제 2요인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14, 11, 15, 5, 8, 9, 3번으로 이 문항들은 주로 자신과 직접 가깝게 관련되는 리더, 즉 직속상관이나 소속집단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쉽과 부정적 측면으로 관련되는 행위속성, 즉 신뢰성 없음, 손해주는 사람, 무능한 사람, 사교성 부족, 성격이 거침, 존경심 감소 등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소속집단 리더의 지도력 요인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세번째 요인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눈치가 없다, 비합리적인 사람, 조심성 없음, 인격이 천함(부적 부하) 등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자기지위와 관련된 인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지위관련

인격 요인으로 명명해 볼 수 있겠다. 요인 4, 5, 6에 대해서는 해석의 난해성을 고려하여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연구문제 5: 어떤 사람(그 사람의 특성과 사회적 신분)이 체면을 지키는데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둔감하거나 무관심 한가

체면을 지키는 일에 민감한 사람의 특성 및 사회적 신분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내용을 심리적 차원에서 내용분석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위 표에서 보면 체면을 지키는 일에 민감한 사람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면, 이미지 중시, 명예지위 중시, 상대와의 지위-권위 차별화 중시, 자신감이 낮음, 형식중시, 자존심 중시 등을 함축하는 성격이나 신분 또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하위 응답내용을 보면, 고급공직자, 교수나 교사, 종교인, 인기인, 유지

〈표 7〉 체면을 지키는데 민감한 사람의 심리-사회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범주	구체적 응답의 예	반응빈도
이미지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중심적 텔런트 ·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여기는 사람 · 눈치를 잘 본다 · 걸치레적 체면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 	127
명예지위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리더, 위치중시 · 존경을 받는 사람 	103
상대와의 지위-권위차별화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신분이 높다 · 타인에 비해 우월감을 느낌 	46
자신감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부단하다 · 내성적이다 ·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다 	37
형식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 권위적, 사교적으로 보임, 보수적 · 예절 및 관습중시 	36
자존심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심이 높다 ·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감높은 사람 ·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 	31

〈표 8〉 체면을 지키는데 둔감한 사람의 심리-사회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범주	구체적 응답의 예	반응빈도
낮은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류층의 사람 · 도덕적, 감정적으로 둔한 사람 · 삶에 찌들린 사람 	76
자기성취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일에 몰두 · 자기발견 중시 · 소신이 뚜렷한 사람 	41
실질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이득에 신경을 쓰지않음 · 체면과 무관함 직업을 가짐 · 타인의 평가무시 · 체면을 허식이라 여김, 실속을 차림 	28
고정관념탈피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념에서 탈피 · 자유분방한 사고의 소유자 	21
창의성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 작업 ·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 	18

등의 지위신분과 형식중시, 명예 중시, 인격중시, 타인 의식 등과 같은 성격요인이 많이 기술되고 있다. 다시 체면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한 사람의 특성 및 사회적 신분에 대한 자유기술식 내용을 심리-사회적 차원에서 내용분석해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위의 결과를 보면 체면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한 사람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낮은 지위, 자기성취 중시, 실질중시, 고정관념탈피 중시, 창의성 중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될 수 있다. 구체적 하위 응답 내용으로는 예술가, 신문기자, 코미디언, 시장상인, 재수생 등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 많이 등장하며, 성격특성으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남, 타인을 의식하지 않음, 목표성이 강함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연구문제 6: 어떤 상황에서 체면을 안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거나 좋은가

체면은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거나 좋은 경우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체면을 안지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를 자유기술하도록 한바, 그 내용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위의 표를 보면 체면을 안지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상대와 아주 친밀한 관계, 즐겁거나 오락성이 있는 상황, 체면을 지키면 거리감을 만드는 관계나 상황, 급한 상황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연구문제 7: 어떤 경우에 체면을 지키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가.

체면을 지키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내용을 내용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위의 결과를 보면 체면을 지키면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 몇 상황으로, 친밀한 관계(unit relationship), 상대의 내면을 잘 아는 관계, 애정이나 회락관계, 친밀한 ingroup내 관계 등이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응답내용은 위의 응답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친할 때, 서로를 깊이 알때, 애정이나 회락과 같은 상황적 특성이 체면 노출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때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8: 어떤 경우에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 경우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내용을 내용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위 표에서보면, 체면을 지켜야 하는 관계는 사돈거리 만남이나 교수와 학생간의 만남에서와 같이 구조적으로윗사람이나 상대를 존경해야 되는 제도적 체면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응답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공식적 만남의 관계나 공식성을 함축하는 상황에서의 관계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표 9〉 체면을 안지키는 것이 좋은 경우 및 상황

상황 범주	구체적 반응내용의 예	반응빈도
상대와 아주 친밀한 관계	· 친구들과의 모임 · 연인사이, 부모자식간 · 친한친구를 만났을 때 · 부모와 대화할 때	90
즐겁거나 오락성이 있는 상황	· 야유회 · 술좌식, MT · 식사할때	64
체면을 지키면 거리감을 만드는 관계나 상황	· 체면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때 · 좀 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55
급한 상황	· 급한 용무(소변) · 바쁜 상황 · 생명의 위급한 상황	23

<표 10> 체면을 지키면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 및 상황

상황 범주	구체적 반응내용의 예	반응빈도
친밀한 관계(unit relationship)	· 친구사이(65) · 식사, 술좌석에서(30) · 선, 후배사이(20)	115
상대의 내면을 잘 아는 관계	· 부부사이(43) · 부자, 모녀사이(29) · 가정생활내 관계(형제간, 자매간)(12)	84
애정이나 희락관계	· 연인간(35) ·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6) · 유흥, 오락, 체육대회중(12) · 맞선, 미팅을 할 때(13)	66
친밀한 ingroup내 관계	· 직장동료(17) · 스승과 제자사이(15)	32

<표 11>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및 상황

상황 범주	구체적 반응내용의 예	반응빈도
제도적 체면관계	· 학부모와 선생님 · 목사와 신도 · 공인의 입장일 때 · 스승을 대할 때	74
공식적 만남의 관계	· 정치가가 대중앞에서 · 회의 석상 · 공식석상(대통령 외교활동)에서	60
아랫사람과의 만남의 관계	· 자식앞에서 부모가 · 교수가 학생앞에서 · 선배가 후배앞에서	57
의례적인 상황	· 초면일 경우 · 제사지낼 때, 상가집에서 · 사돈끼리 만날 때	42

연구문제 9: 어떤 연령, 사회적 신분, 지위를 가진 사람이 체면을 더 지켜야되고 덜 지켜야 되는가.

먼저 체면을 지켜야 하는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 및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지키기 필요성 정도의 평가 점(5점척도) 평균을 보면 표 12와 같다.

위 표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예컨대, 장관, 교수, 사장, 총장)일수록 체면을 지켜야 될 필요성 평정이 높으

며 낮은 신분이나 서민(예컨대, 대학생, 노동자, 거지, 농민 등)일수록 그 필요성의 평정은 낮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사회적계층 신분 순으로 체면을 지킬 필요성의 정도는 변한다.

가장 체면을 많이 지켜야 되는 신분의 사람을 순서로 보면, 장관, 목사와 신부 또는 스님, 판검사, 대학의 총장, 사장, 군인장교,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위신분 간에 체면상에서의 요인

<표 12> 체면을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평가치

체면을 지켜야 할 사람	평 균	순 위
1. 장관	4.067	1
2. 사장	3.767	5
3. 대학교수	3.600	8
4. 국회의원	3.678	7
5. 판검사	3.833	3
6. 의사	3.256	
7. 파출소장	3.067	
8. 동네의 동장	2.511	
9. 고등학교 선생님	3.411	
10. 대학생	2.211	
11. 노동자	2.122	
12. 거지	1.267	
13. 대학의 총장	3.811	4
14. 농민	2.211	
15. 목사, 신부 또는 스님	3.844	2
16. 교회의 집사	3.156	
17. 신문기자	2.378	
18. 사회여성단체 지도자	3.322	
19. 군청의 군수	3.322	
20. 시골의 면장	2.844	
21. 범죄집단의 두목	3.433	
22. 연예인	3.256	
23. 시인 및 화가	2.356	
24. 군인 장교	3.689	6

구조를 탐색해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바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 바, 제 1요인이 전체 변량의 34%, 제 2요인이 10.3% 그리고 나머지 요인이 7.7%, 6.1%, 5.1%,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 1요인과 제 2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시 항목별로 요인부하량을 보면, 제 1요인에는 장관, 국회의원, 사장, 대학교수, 판검사 등이 모두 .5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고 묶이며, 제 2요인은 노동자, 농민, 대학생, 거지, 예술가(시인, 화가) 등이 .5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고 묶인다. 이 두 요인을 보면 신분에 따른 구조가 명백히 대비됨을 알 수 있다. 단 시인,

Symbol	Variable	Coordinate
1	BB1	.821 .198
2	BB2	.741 -.098
3	BB3	.599 .069
4	BB4	.786 .131
5	BB5	.542 .212
6	BB6	.160 .254
7	BB7	.126 .083
8	BB8	.181 .104
9	BB9	.311 -.187
10	BB10	.134 .283
11	BB11	.011 .228
12	BB12	-.112 .036
13	BB13	.523 .097
14	BB14	.024 .096
15	BB15	.127 .216
16	BB16	-.062 .381
17	BB17	.005 .744
18	BB18	.234 .726
19	BB19	.432 .495
20	BB20	.308 .412
21	BB21	.006 .076
22	BB22	.220 -.083
23	BB23	.337 .084
24	BB24	.191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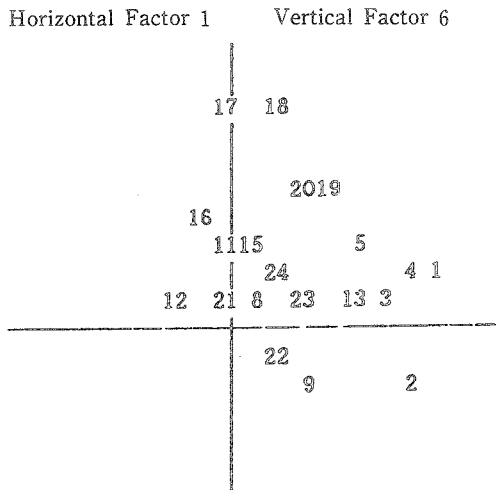


그림 1. 체면을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13> 체면을 지켜야할 사람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커뮤넬리값
BB1	.82063	-.05465	.07190	.05026	.12957	.19757	.73994
BB4	.78596	.16148	.04066	.09852	.19466	.13101	.71022
BB2	.74127	-.00702	.31823	.04856	.04243	-.09796	.66455
BB3	.59856	.20298	.40309	.47520	-.13283	.06934	.81023
BB5	.54153	.17548	.00753	.33755	.44223	.21187	.67850
BB11	.01138	.81031	.04123	.09900	.08805	.22796	.72795
BB14	.02442	.75902	.07325	.18804	-.06323	.09601	.63065
BB10	.13406	.67514	.10845	.34424	-.00899	.28279	.68410
BB12	-.11187	.55911	.43114	-.28859	.24051	.03589	.65343
BB23	.33671	.51568	.26600	.25038	-.09795	.08407	.52941
BB7	.12626	.08665	.76238	.28198	.09593	.08296	.70027
BB8	.18103	.29938	.73132	.10824	.00003	.10427	.67982
BB20	.30766	.13562	.61643	.06141	.24285	.41233	.72580
BB19	.43209	-.00771	.53807	.06471	.04713	.49472	.72743
BB15	.12718	.20848	-.00113	.76046	.28594	.21598	.76634
BB16	-.06169	.33583	.16646	.62017	.10105	.38057	.68395
BB13	.52256	.08624	.21860	.54560	.11644	.09670	.64889
BB9	.31120	.23051	.32529	.53372	-.05507	-.18724	.57874
BB6	.16015	-.03364	.32263	.46655	.43443	.25423	.60190
BB21	.00552	.02828	-.09190	.10972	.79875	.07612	.66511
BB24	.19144	-.11417	.18505	.07429	.73625	.12129	.64623
BB22	.22005	.46231	.22331	-.00136	.55664	-.08296	.62875
BB17	.00460	.31236	.17177	.13804	.07777	.74398	.70570
BB18	.23388	.21912	.09397	.17256	.14371	.72590	.68891
아이겐값	8.16997	2.47695	1.85349	1.47559	1.21945	1.08128	
설명량	34.0	10.3	7.7	6.1	5.1	4.5	

화가, 예술가의 경우 제 2요인에서 부하량이 높기는 하나, 제 1요인에서도 .34 수준에서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이 직업의 사람들은 높은 신분과 더불어 하위신분의 사람들의 탈체면 또는 무체면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직업특성이 창의성과 탈규범성, 탈제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시 제 3요인을 보면, 높은 부하량을 보인 항목이 파출소장, 동장, 면장, 군수 등으로 지역사회 공직자가 함께 묶임을 알 수 있다. 제 4요인에서는 목사, 집사, 총장, 고교선

생, 의사 등이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제 5요인에서는 범죄집단의 두목, 군인장교, 연예인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묶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제 1요인에서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직업의 사람들, 제 2요인에는 사회적 권력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제 3요인에서는 지역사회 공직자, 제 4요인에서는 종교인, 총장과 같은 사회 명예적 직업의 사람들, 제 5요인에는 집단의 특성상 조직 내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로 군집되어 있다. 따라서 제 1요인을 사회적 권력요인, 제 2요인을

사회적 무권력 요인, 제 3요인은 근접적 지도력 요인, 제 4요인은 인격적 영향력 요인, 제 5요인은 조직내적 권위특성 요인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체면의 발생근거 즉 체면 거리는 사회적 권력, 리더 영향력, 인격적 영향력, 조직 내적 권위 등의 하위요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0 :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체면관계 상황에서 노출시키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체면 관계상황에서 노출시키는 방식을 묻는 자유기술식 응답에 대한 내용분석결과를 표 14과 같다.

위 표에서보면, 체면 노출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사용

<표 14> 체면관계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노출시키는 방식

반응 범주	구체적 반응내용의 예	반응빈도
사회적으로 부와 권위의 symbol이 될 수 있는 것을 현시하는 것	· 좋은 집, 고급 자동차 · 의제사용 · 골프 · 많은 혼수	187
자신의 학력이나 인격과 같은 신분관련 내적 특성을 보여주는것	· 근엄한 표정 · 점잖은 말씨, 여유있는 태도 · 권위적인 행동 · 난해한 언어사용	41
고급신분자들과 ingroup관계를 보여줌	· 동창모임 · 사회적 신분이 높은사람들과 교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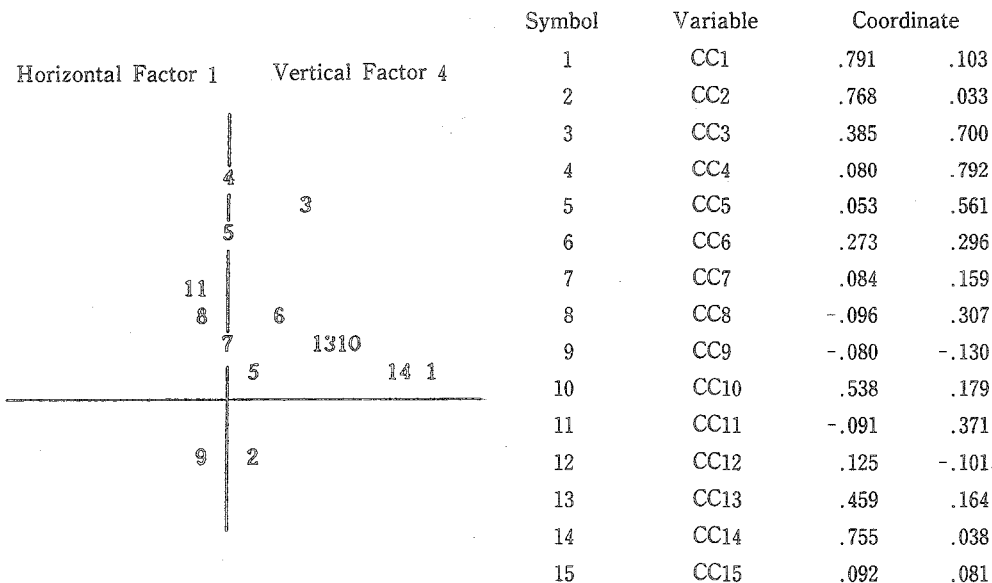


그림 2. 상대의 체면을 높여주는 방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15> 상대의 체면을 높여주는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치

행 동 항 목 문 항	평균	순위
1.그 사람 앞에서 굽실거린다	2.844	
2.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노출시키는 말을 한다	3.689	4
3.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2.767	
4.그 사람의 장점을 추켜세운다	3.667	5
5.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3.422	6
6.그 사람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지킨다	3.922	2
7.그 사람 앞에서 자기자랑을 하지 않는다	2.700	
8.그 사람보다 큰절을 가졌을 경우, 남들 앞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556	
9.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3.078	
10.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비록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한다	3.222	
11.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남들 앞에서 거론하지 않는다	2.822	
12.그 사람과 친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 않는다	2.456	
13.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과장하여 암시한다	3.744	3
14.그 사람 앞에서 송구스러운 태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인다	2.878	
15.그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겸손으로 감추는 성격의 사람으로 암시한다	4.033	1

되는 방식이나 symbol은 1) 고급 신분자들과의 ingroup관계를 보여줌 2) 사회적으로 부와 권위의 symbol이 될 수 있는 소유물을 현시하는 것 3) 자신의 학력이나 인격과 같은 신분관련 내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체면 symbol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론된다.

연구문제 11: 상대의 체면을 제 3자 앞에서 세워주는 행동이나 말은 어떤 것인가

상대의 체면을 제 3자 앞에서 높여주는 행동 항목에 대한 효과성 평정점수를 먼저 평균점수로 환산해 보면 표 15와 같다.

위의 표에서 가장 높은 평정 점수를 보인 문항은 15번(그 사람은 자신의 권위나 힘을 겸손으로 감추는 성격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암시한다), 6번(그 사람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지킨다), 13번(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과장하여 암시한다)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상대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직접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상대의 지위를 타인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더 많은 힘이 있는데 실제 보이는 가진 권위나 힘보다 적게 보이며 그 이유는 상대의 인격이 권위나

힘을 감추는 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들 상대 체면 높이기 방식간의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표 16와 같다.

위의 표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된 바, 가장 높은 설명변량을 가진 요인은 요인 1(26.8%)과 요인 2(14.5%)이다. 요인 1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굽신거림(문항 1), 신분암시(문항 2), 송구스러운 태도(문항 14),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복종(문항 10)이며, 요인 2는 상대의 단점을 말하지 않음(문항 9), 상대 앞에서 자랑하지 않음(문항 7), 상대 앞에서 부자인 척 안함(문항 8), 깍듯한 예의(문항 6) 등이다.

요인 1은 그 문항의 성격상 권위에 대한 직접적 승복이며, 요인 2는 상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나 언사를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정적 권위노출이라 한다면 요인 2는 부적 권위실추회피라고 볼 수 있다. 요인 3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겸손한 사람(문항 15), 큰 힘의 암시(문항 14), 상대와 가까운 척을 안함(문항 12)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상대가 권위가 있는데도 그 권위를 감추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요인 4에서 높은

<표 16> 상대의 체면을 높여주는 방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커뮤널리값
CC1	.79134	.10786	-.08673	.10290	.65596
CC2	.76769	-.01247	.11364	.03334	.60353
CC14	.75531	-.20877	.21752	.03791	.66283
CC10	.53756	.30984	.21644	.17886	.46380
CC9	-.08024	.76376	-.00356	-.13006	.60670
CC7	.08359	.71635	.13365	.15918	.56335
CC8	-.09623	.60757	.22878	.30674	.52483
CC6	.27325	.55269	.26598	.29609	.53855
CC15	.09246	.10263	.77914	.08078	.63266
CC13	.45900	-.09312	.62983	.16434	.64305
CC12	.12474	.27316	.61895	-.10095	.48346
CC11	-.09074	.25310	.52859	.37120	.48949
CC4	.08008	-.11159	.22146	.79244	.69587
CC3	.38510	.25628	-.24495	.70043	.76459
CC5	.05297	.34344	.08512	.56149	.44326
아이겐값	4.01728	2.17279	1.44077	1.14110	
설명량	26.8	14.5	9.6	7.6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문항 8과 문항 6으로 이 두 문항은 이미 다른 요인에 높은 부하를 나타내고 있어 여기서는 이 요인에 대한 해석을 회피하기로 한다. 따라서 3개의 요인에 대해 명명해 보면, 제 1요인은 정적 권위노출, 제 2요인은 부적 권위노출, 제 3요인은 숨겨진 권위암시 등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2. 실험연구

체면행동은 체면 상호작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대학생 피험자들이 실험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위관계상 상위에 있는 논문 지도교수와 논문의 주제설정을 위해 교수의 연구실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서 상의하는 자연상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 안면표정 및 거동을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통해 녹화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한 논문주제를 이야기할 때 실험자인 교수는 학생의 의견에 가볍게 반대하는 논평을 다음과 같이 해

주었다. “그 주제는 논문의 주제로 약간 어렵지 않은가? 학생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반응을 보인 후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화의 맥락에서 교수의 반응이 필요한 경우에 “글쎄” 또는 “그럴 수 있지” 등의 간단한 응답반응만을 해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록된 5명의 피험자 자료를 재생시키면서 실험자를 비롯한 2명의 연구조교가 체면관련 행동을 추출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실을 들어오는 피험자들의 안면표정은 5명(남자 3명, 여자 2명)중 4명이 “죄송하다” 또는 “송구스럽다”는 표정을 나타내 보였다. 단 1명의 여자피험자만이 밝은 웃음과 더불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똑똑히 하였다.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인사말을 건넌 뒤의 여학생을 제외한 4명의 학생은 “이 주제가 논문제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는 “논문주제를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등과 같은 자신없는 태도를 대화의 서두에서 표출하면서 “양해해 달라” 또는 “지도해 달라”는 자기비하와 교수존경의 메시지를 언어와 행동을

통해 실험자인 교수에게 표출해 보였다.

일단 피험자가 표현한 논문주제에 대한 생각을 긍정도 부정도 아닌 “글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교수가 반응했을 때 4명의 피험자가 이 제안에 수긍한다는 목중반응이나 자신의 생각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손쉽게 그 자리에서 시인하는 언어적 및 안면표정적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단 1명의 여자 피험자만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안면표정을 통해 나타내 보였으나, 직접 교수의 말에 반대하는 의견은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교수의 제안에 대한 응답을 보류한 상태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는 행동과 안면표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교수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약 5내지 10분간의 대화과정에서 포착되는 피험자들의 공통적 태도는 “가르침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역력했다. 물론 이 상황은 특정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자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어서 비과제적 사회상황처럼 체면차리기 또는 체면세워주기 행동이 현저히 의현화되고 다양하지는 않았다. 보통 체면은 지위관계에서 상하관계나 이해관계에서 한사람이 상대에 대해 의존적인 이자가 상호작용을 옆에서 목격하는 제삼자나 제삼자 집단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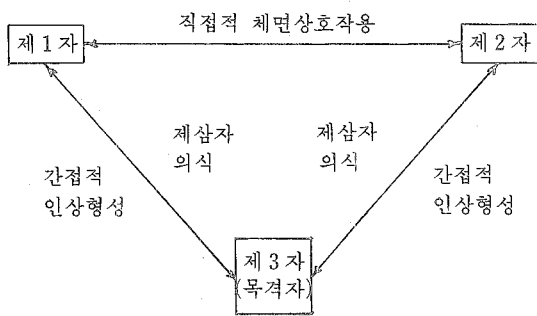


그림 3. 체면 상호작용의 행위 당사자와 목격 제삼자간의 관계

체면은 위의 도식에서처럼 목격하는 제삼자가 있을 때 이를 의식해서 자신의 체면을 내세우거나 상대의 체

면을 내세워줄 필요와 관계상황이 내재화되었을 때 심리적이며 동시에 언어-행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본 실험에서와 같이 이자상황이며, 과제해결 지향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체면심리와 체면행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연구가 끝난 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이와같은 제한점을 갖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교수 체면세워주기 행동은 언어적 행동 뿐 아니라 부언어적 행동, 안면표정 및 거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누출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라. 요약 및 결론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친다”는 속담이 체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 이 속담의 이면에는 상놈 또는 서민은 물에 빠질때 개해엄을 칠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냉수 먹고 이빨 썩신다”는 속담이 있다. 전자의 속담은 높은 품격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자신의 품격이나 신분을 낮추거나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의 속담은 남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의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거짓으로 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신분위치를 높이라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전자의 속담과 관련해서 보면 체면을 내세울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 즉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으로, 그러한 행동에는 격식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격식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속담과 관련해서는 체면격식을 밖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는 동기가 사실을 호도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담의 심리학적 분석과 더불어 체면 유지적 인간관계 상황에 대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실험은 교수와 학생의 인간관계적 상호작용 상황을 조성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상대 체면세우기” 행동을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1. 체면은 문자 그대로 몸의 바깥면을 말하며, 따라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체면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보다 자기 스

스로의 자기판단에 근거한 자기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체면은 밖으로 비추어진 외적 자존심이라 한다면, 자존심은 안으로 비추어진 내적 체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체면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현상은 아니다. 내세울 체면거리가 있는 즉 지체나 위신, 신분, 가문 등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며 행동의 격식이 되나 내세울 체면거리가 별로 없는 즉 사회적 또는 개인적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내세울 체면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자존심은 있을 수 있다.
3. 체면에는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동의 격식이 현시적 또는 잠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격식에 맞지않는 행동을 내세울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 즉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체면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사회에서 요구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체면은 스스로 차리는 체면과 남이 세워주는 체면이 있다. 보통 “체면차리지 말고 많이 먹어라”라는 말은 스스로 차리는 체면을 지칭하며, “내 체면 좀 세워주라”라는 말 속에는 본인, 상대, 제삼자의 삼자관계 속에서 상대가 본인을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 줌으로써 제 3자에게 본인을 높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는 즉, 체면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체면거리를 상대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체면거리를 별로 신통하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체면지켜주기”라 칭한다면 후자를 “체면치레”라고 칭할 수 있다.
5. 체면을 차리는 방법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행동격식을 밖으로 스스로 해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이며, 이자관계나 삼자관계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은 상대의 사회적 신분을 암시하는 행동을 해보이거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을 체면당사자와 연계시킴으로써(예컨대, “대기업의 사장님으로서 적어도 B.M.W는 타야 되지요”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해줌으로써 본인은 물론 제삼자에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란 것을 암시하는 경우), 당사자의 체면을 지키거나 세워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6. 체면은 “안면” 또는 “얼굴”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남에게 혜택을 받고 그 은혜 값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보답을 할 때 옆에 사람이 “고양이도 낮 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약소한 보답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낮 짝”은 “안면”을 말하며, 옆치나 사람의 기본도리를 못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안면몰수”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안면몰수는 상대와의 기존관계나 상대의 기대를 무시하고 이에 못미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안면이란 개념은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적 교환법칙이나 에티켓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안면은 지위와 상관없이 대인관계에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상호작용의 기본적 법칙으로 서양에서의 face의 개념에 가깝다. 서양에서 face를 지키고 지켜주는 상호작용 법칙은 “politeness(친절)”이며 한국에서 안면을 지키고 지켜주는 방식은 “겸손”이다. 물론 겸손속에 상대의 지위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7. 체면이 세워지면 위신이 서고 위신이 세워졌을 때 이를 남에게 과시하게 되면 우쭐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체면이 떨어져서 체통을 잃으면, 남에게 업신여겨지게 되고 기가 죽을 수 있다. 또한 체면을 지나치게 차리면 위신과 형식주의가 되고 체면을 지나치게 안차리면 체통이 떨어진다. 따라서 체면은 적당히 차려야 한다.
8. 체면은 지켜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상황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서로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체면을 지나치게 차리면 거리감이 생긴다.
9. 일상생활에서 “체면”과 “안면”의 용어는 혼용되기도 한다. 체면의 뜻으로서 “안면”이 사용될 때는 “사회적 안면”을 뜻하는 것으로, 체면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0. 체면은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인 반면 자기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개인주의적 미국사회에서는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보다 덜 중요하다. 미국사회에서는 체면보다 안면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교환차원이다.

참 고 문 헌

- Jones E. E. & Davis, K.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I.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 Academic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 Pantheon.
- Goffman, E.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owell, R. (1967). *Linguistic choice as an index to social change*, University of California Dissertation.
- 가세히데아키(1989). 한의 한국인 황공해하는 일본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용운(1986).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길사.
- 김정규(1991).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정치의식구조, 민주화논총 제2권 7호, 민주문화아카데미.
- 동아일보사(1991). 한국인 진단-자기 성찰을 통해 본 우리의 자화상.
- 여동찬(1987). 이방인이 본 한국 한국인, 중앙일보사.
- 윤태립(1986). 한국인의 성격, 동방도서.
- 이규태(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 이규태(1987). 한국인 한국병, 도서출판 일념.
- 이규태(1991). 한국인의 버릇, 신원문화사.
- 이근후, 김재은, 김정규, 박영숙(1991). 이화방어기제 검사, 하나의학사.
- 이정민(1983). 한국인과 한국문화-한국의 경어체계 연구의 계문제, 심설당.
- 차재호(1988). 한국인의 성격-국민성의 활성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1991). '핑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Multifaceted Analyses of Chemyon (Social Face) :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Sang-Chin Choi and Seung-Yeob Y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From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es, eight themes can be extracted. First, chemyon is literally the appearance or surface of one's self. Self-esteem need not be contingent upon the perception of others. Social esteem, however, is closely tied to chemyon. Second, chemyon is important to person of high social status. Conversely, chemyon is not important for those who have low status. Third, chemyon is regulated by social norms and rules of propriety. A person must behave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social position. Acting in a manner contrary to one's position could result in the loss of chemyon. Those who are in high social positions are required by society to act in a manner that is befitting of that position. Fourth, chemyon can be maintained by oneself, or enhanced by others. Maintaining chemyon thus constitutes a social action carefully orchestrated by oneself or with the assistance of a partner in front of an audience. Fifth, individuals can reveal their social status through chemyon behavior. By a chemyon act or by using status symbols, individual induce others to notice their social position. Another person can suggest or imply the partner's social status by his or her behavior toward the target person. Another person causes a loss of chemyon, then it could be perceived as a grave error or as a punishment for the target person. Sixth, the concept of chemyon implies basic etiquette and exchange rules in social relations. In Western countries politeness is an important exchange rule. In Korea, modesty is an important exchange rule. It is better to have an accomplice one's face than to do it by oneself. Seventh, when chemyon is maintained, one's prestige is also maintained. Conversely, the loss of chemyon incur a loss of dignity. Chemyon can be lost if one's behavior becomes very formalized and hypocritical.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hemyon at an appropriate level, with a touch of modesty. Eighth, chemyon needs to be maintained mainly in formal and public setting. If chemyon is rigidly observed even among close friends, the relationship will be strained. Ninth, chemyon is important in a society where one must be aware of others and their perceptions. In individualistic and egalitarian society such as the United States, chemyon plays a less significant role than in Korean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chemyon is often regarded as excessive formalism and hypocrisy. In Confucian societies, it is an essential social ingredient. Confucianism stress that individuals have a particular status and role, and they must behav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at particular status and role.